

자동 차광 용접보안경 'WG-01' 주목 가볍고 얇아 장시간 사용해도 압박감 없어

눈 보호구 분야의 최강자 '오토스'

오토스는 33년 이상의 경험으로 얻은 기술과 노하우로 눈 보호구 분야에서 국내외 최고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또한 각종 산업용 안전장비를 자동차 업계는 물론 중공업, 철강, 조선, 화학 등 국내를 대표하는 주요 기간산업에 공급하고 있다. 생산·공급하는 장비의 품질과 성능 모두 산업현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자동 전자용접면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정평이 나있다. 현재 세계 38개국으로 제품을 수출하고 있을 정도다. 이처럼 오토스가 국내를 비롯해 해외 시장에서도 주목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땀의 결실이다. 오토스는 그동안 꾸준한 기술 개발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품질 인증을 받았으며, 특히 자동 전자용접면의 R&D에는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했다.

독창적인 디자인과 우수한 기능으로 유명

오토스의 자동 전자용접면은 독창적인 디자인(세계 최초 시도한 데칼의 접목)과 우수한 기능으로 유명하다. 이는 세계 각국의 인증 획득을 통해 수차례 증명됐다. 오토스는



자동 차광 용접보안경 'WG-01'

2006년 6월 아시아 업체로는 최초로 자동 전자용접면 관련 유럽인증인 DIN인증을 획득했다. 이 인증은 유럽시장진출을 위한 기본인증인 CE인증을 넘어서는 매우 값진 인증으로 알려져 있다. 제품의 체계적인 안전검사를 비롯해 관련법규에서 요구하는 모든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까다로운 제도로 현재 유럽 소수의 업체들만 획득한 상태다. 이외에도 오토스는 KS(한국표준규격), KCS(한국안전인증규격), ANSI(미국안전규격), NIOSH(미국보건안전규격), CE(유럽안전규격), CSA(캐나다안전규격), AS(호주규격) 등 여러 국가의 안전규격을 획득했다. 오토스의 한 관계자는 "오토스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제품이 아니면

제조하지도, 판매하지도 않는다'는 신념 아래 신기술 개발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오토스의 기술력이 집약된 'WG-01'

오토스는 최근 자사의 뛰어난 디자인 감각과 기술력이 집약된 신제품을 출시했다. 그것은 바로 자동 차광 용접보안경 'WG-01(가칭)'다. 이 제품은 작업장에서 유해한 광선(자외선, 적외선 및 강렬한 가시광선)이 발생할 때 자동으로 차단해주는 안경 형태의 보호구다. 용접은 물론 용접 주변작업, 산소절단, 가우징 등 광범위한 작업장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또 사용자의 안면에 착용되는 안경타입의 자동 차광보안경으로, 가볍고 얇은 형태를 갖추고 있다. 때문에 장시간 사용해도 압박감이 없고, 사용자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아울러 강렬한 광선이 발생하기 전에는 일반적인 차광보안경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필요시 자동으로 차광되기 때문에 협소한 공간에서도 유용하다. 이밖에 도수안경 및 안전모, 방진마스크, 보안면 등의 보호구와도 겸착용이 가능하다. ☺